

나주시, 영산강 품은 파노라마 전망대 본격 추진

착수보고회 실시... 미래 관광명소 설계 착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영산강과 한반도 지형이 빚어낸 천혜의 자연을 담아낼 새로운 관광 명소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영산강 한반도지형 파노라마 전망대 제작 및 설치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20~40대 젊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영산강 한반도지형 전망대는 젊은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나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망대는 동강면 곡천리 산 386-5 일원

에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로 2026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면적 약 2,200㎡, 지상 6층(높이 43m) 규모로 조성하는 전망대는 영산강 한반도 지형은 물론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보고회에서는 단순한 조망 공간을 넘어 미디어 아트와 야간 조명,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한 복합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젊은 공무원들의 참여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며 전망대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했다.

윤병태 시장은 "전망대는 영산강과 한



반도 지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나주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라며 "젊은 세대의 시각을 반영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설계

를 본격 추진해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과 열린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명소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한다.

이번 모집은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이 대상이며, 신청은 무안군 보건소 위생1팀(☎450-5018)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452-8809)에서 가능하고 관련 서류와 세부 기준은

무안군, '2025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업소 모집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위생 및 서비스 등 전반적인 현지 평가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된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모범음식점

53개소도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군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

쓰레기종량제봉투(50L)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관련 위생용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상현 보건행정과장은 "모범음식점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군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뢰의 상징"이라며, "지역 외식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무안군 제공

보성군, '제1회 보성열선루 장계쓰기 대회' 참가자 모집

이순신 정신 담은 장계, 보성 열선루에서 다시 쓰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회 보성 열선루 장계쓰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충절과 애민정신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 장군의 장계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장계의 산실이었던 열선루의 역사적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이순신과 열선루, 그리고 보성'으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주제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장계를 작성해 응모할 수 있으며,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는 현장 대회에서 승위를 확정한다. 본선 대회는 오는 10월 25일(토)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보성 열선루공원에서 개최된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장계를 필사하며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시상은 부문별로 진행되며,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200만 원이, 학생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라남도교육감상과 상금 100

만 원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등이 총 36명에게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보성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방문·이메일·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균관청년유도회 전라남도 보성지부(☎061-852-1350)에 문의하면 된다.

장계(狀啓)는 조선시대 장수나 지방관이 국왕에게 국정 상황이나 전황을 보고하기 위해 올리던 문서다.

그중 임진왜란 명량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올린 "신에게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今臣戰船 尙有十二)"라는 장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지금까지도 널리 전해지고 있다.

특히, 보성의 '열선루'는 당시 관군과 의병이 모여 전황을 논의하고 장계를 작성·상주하던 장소로, 이순신 정신과 보성 의병의 역사가 함께 깃든 공간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화순군, 고인돌오토캠핑장 '한가위 캠핑왕'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중심 체험형 프로그램인 『화순고인돌 한가위 캠핑왕』을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맞이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화차별 20개 팀씩 총 40팀이 참가하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한가위 요리 경연대회, 쿠킹클래스, 전통 놀이 대항전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인돌오토캠핑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9월 15일부터 네이버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화순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화순고인돌유적지와 연계하여 고인돌유적지를 가족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순/김중환 기자



진도군 나리방조제, 만개한 꽃 물결... 가을 정취 물씬

진도군은 나리방조제(3.2km) 일원에 조성한 꽃길에 가을꽃들이 만개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나리방조제는 진도읍과 군내면 외곽을 연결하는 직선도로로, 평소 많은 군민이 산책을 즐기는 장소이며, 군은 이 일대에 계절 꽃을 심어 환경을 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만개한 꽃은 일반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백일홍과 같은 다채로운 가을꽃들로, 방조제 일원 약 42,000제곱미터(㎡)에 알록달록하게 펼쳐져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꽃밭 사이에는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돼 걷기만 해도 치유(힐링)가 되는 '꽃길 체험'이 가능하다.

진도/오재명 기자



구례군, '재가암환자 활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전남 구례군은 재가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활력증진 프로그램'을 지난 9월 3일부터 총 16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체력을 사전·사후로 측정해 운동 전후의 변화 정도를 비교·평가하며, 암환자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전남권역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남원체력인증센터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효과를 한층 높였으며, 전문 운동처방사의 지도 아래 스펙트럼 관리 교육 △근력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 등이 진행된다. 한 참여자는 "혼자 운동할 때보다 지지를 받으며 함께하는 점이 만족스럽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유대를 쌓을 수 있어 큰 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